

빅맨 : 사회의 진정한 리더

| SBS <최후의 제국>제작팀, 홍기빈 |

사회의 진정한 리더는 빅맨이어야 하며 남태평양 작은 섬 아누타의 빅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빅맨의 인류학

빅맨은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멜라네시아의 지도자 유형을 개념화한 용어로, 미국의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의 <빈자, 부자, 빅맨 그리고 추장: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의 정치 형태>라는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남태평양은 크게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의 두 문화권으로 구획되는데, 멜라네시아는 파푸아뉴기니, 비스마르크, 솔로몬 제도, 피지 섬을 포함하는 영역을 가리키고 폴리네시아는 뉴질랜드, 하와이 섬, 이스타 섬을 포함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마셜 살린스에 따르면 폴리네시아 사회가 위계적인 피라미드의 정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반면, 멜라네시아 사회는 평등한 소규모의 공동체들이 각기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멜라네시아의 평등한 공동체의 지도자 빅맨이 서구 인류학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빅맨이 세습이나 위계가 아닌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과 지혜에 의해 그 지위를 획득한다는 점과 더불어 지위를 유지하는 독특한 방식 때문이었다. 일명 빅맨이라 불리는 멜라네시아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생산물을 구성원들에게 호기롭게 나눠주어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자신의 몫으로는 하나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임을 얻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한다.

서구 인류학자들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빅맨 시스템이 인류 공동체의 시원적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었다. 빅맨 연구자들은 지도자의 시혜에 의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생산물의 증가와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때 인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근의 빅맨에 관한 연구는 빅맨의 지위가 세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새롭게 밝혔지만, 공동체 성원들의 신임이 빅

맨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데에는 아직까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빅맨은 또 다른 예비 빅맨의 도전을 받기 마련이며, 누가 얼마나 많이 베풀고 적절히 분배하는가를 두고 예비 빅맨과 항상 경쟁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복수의 빅맨들은 각자 자신의 지지자들의 생산을 독려하여 더 많은 생산물을 얻고 더 많이 베풀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얻어낸다. 여기서 빅맨의 야심이란 오직 구성원들의 존경심을 얻는 것이며, 구성원들의 존경은 공정한 분배의 실현과 이를 통한 공동체의 생산력 향상 여부에 달려 있다. 구성원들은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몫을 포기한 빅맨에게 그저 존경과 찬사로 화답하면 된다. 이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과 지도자의 호혜적 관계는 인류 공동체가 반드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계관계를 통해 조직된다는 논리를 반박한다.

마빈 해리스는 《식인과 제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지도자 사이의 동등한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즉 구성원들의 생산물 공납이 자발적이지 않은 강제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토지와 바다와 같은 생산 환경에의 접근권이 제한되며 지도자의 권리 행사가 폭력을 동원하는 순간, ‘식량 관리자’이자 ‘시혜적 분배자’는 더 이상 빅맨이 아니라고 말한다. 강제력에 의해 성원들의 생산물을 거두고 은혜로운 시혜를 베푸는 지도자는 더 이상 빅맨이 아니라 군주이다. 말하자면 빅맨이 식량 생산자들의 너그러운 선심에 의존하는 한편, 군주의 백성은 군주의 너그러운 선심에 의존한다.

마빈 해리스는 이렇게 힘의 균형이 깨지는 시점을 인구과밀화의 시점으로 보았다. 한 부족이 인구 적정선을 넘어 2개 이상의 부족으로 양분된 후 분화된 자 부족이 자급자족하지 않고 모 부족의 재분배 해

택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대가로 주종관계를 선택할 때, 모 부족의 빅맨은 통치자로서 더 이상 종속적인 자 부족의 신임을 얻기 위해 시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 혹은 인구과밀화로 부족들이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서 패한 부족이 승리한 부족에게 세금과 공물을 바쳐 평화를 유지하고자 할 때, 전쟁에 승리한 부족의 빅맨은 자 부족을 대하는 모 부족의 빅맨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패한 부족에게 시혜를 베풀지 않는다.

빅맨에서 통치자로의 진화를 원시 공동체에서 군장사회로의 진화에 대응시키는 마빈 해리스의 논의는 생태인류학에 기반한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빅맨 사회는 선사 시대 인류공동체의 화석이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로의 산업화·근대화를 기준 삼아, 전 세계의 다양한 사회를 시간적으로 배열하는 ‘진화주의’는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부로 자처하는 제국주의적 세계관에 불과하다.

분명, 빅맨은 21세기 현생 인류가 택한 또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다. 또 빅맨 시스템이 비서구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사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의 복잡한 사회 시스템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 마셜 살린스가 말했듯이, 빅맨 시스템은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형태에서 사회적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제이고 복잡한 사회에서조차 자율적인 소규모 공동체 공간에서라면 시행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생산물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지도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빅맨의 도덕적 함의는 1퍼센트의 욕망에 선점된 자본주의 사회를 되돌아보게 한다. 따라서 파푸아뉴기니의 빅맨 시스템을 고수하는 상각부족에게서 그 진화적 가설을 검토하는 대신, 인류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도덕적 함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 공동체는 극심한 불평등의 벼랑에 서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각부족의 빅맨

상각부족의 빅맨인 존 이판푸식은 공동체를 훌륭하게 이끌어 왔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다. 때때로 존 이판푸식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웃 부족을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기도 한다. 이는 완득 내외부적으로 호혜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한다.

상각부족 사람들은 이웃 부족에게 마을의 먹을거리를 아낌없이 내놓곤 한다. 만찬이 시작되기 전 높은 탑을 세우고 중간중간 받침대를 만들어 고구마와 코코넛, 바나나 등을 가득 올려놓는다. 탑의 맨 아래에는 살아 있는 돼지를, 맨 위에는 닭을 올려놓는다. 초대받은 부족은 밤새 춤과 노래를 즐기고, 그 다음날 아침 쌓아놓은 식량과 돼지를 모조리 끓여진 채 돌아간다. 다음번에는 초대받은 이웃 부족이 상각부족을 성대하게 접대할 것이다. 이웃 부족의 빅맨은 접대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돼지와 식량을 준비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것이다. 이렇듯 파푸아뉴기니 부족들은 빅맨의 능력을 경쟁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부족 내 생산의 효율적인 협업과 부족 간 생산물의 합리적 분배를 이끌었다.

상각부족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누군가의 집을 만들어주는 날에는 반드시 만찬이 준비된다. 집짓기가 끝나면 곧바로 마을 잔치가 시작되는 식이다. 상각부족에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 앞서 자신의 몫을 내놓는 사람 또한 상각부족의 빅맨인 존 이판푸식이다. 존 이판푸식은 상각부족에서 가장 귀한 먹을거리이자 부의 척도인 고구마와 돼지를 내놓는다. 존 이판푸식이 내놓은 돼지고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단백질이 부족한 이곳에서 돼지고기는 최

고로 귀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존 이판푸식의 밭에서 수확한 고구마와 돼지고기는 마을 전체에 가족 단위로 분배된다. 빅맨과 함께 돼지고기를 나누는 날이 바로 마을의 축제인 셈이다. 돼지고기를 받아든 마을 사람들은 빅맨에 대한 존경심과 고마움을 표한다. 또 상각부족 사람들은 이웃에 집 없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수치라 여긴다. 이곳에서 집이 없어 밖에서 떠돌고 밥을 굶는 등 가난한 자가 방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빅맨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공정한 분배이다. 마을 사람들은 존 이판푸식의 지휘에 따라 준비된 음식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공평하게 나눈다. 이 분배 의식은 철저히 투명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베푸는 것에 인색하거나 나누는 것에 공평하지 않은 빅맨은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나누는 데에도 빅맨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시한다.

아랄 넨은 미국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수많은 정치인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빅맨과 달리, 자신의 몫을 내놓지 않고 구성원들의 삶을 돌보지도 않았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대학을 나와 고향 마을에서 빅맨으로도 살았던 넨이 보기에, 미국의 정치인은 빅맨과 같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끝) 

- 이 글은 『최후의 선택 아로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SBS<최후의 제국>제작팀

저자 | **장경수** PD | 어려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던 그는 다큐멘터리 PD가 되어, 자신이 바라본 세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를 천직으로 여기고 산다. 《최후의 톤드라》, 《최후의 제국》, 《최후의 권력》 등을 연출했고,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한국PD대상 작품상, 상하이 TV페스티벌 금상, 휴스턴 필름페스티벌 금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 | **최정호** PD | 로맨틱 코미디에 마음 설레고 여행을 사랑하지만, 시대와 선배의 부름에 다급

멘터리에 빠져버린 감성 PD다. 《기적의 하모니》, 《최후의 제국》, 《최후의 권력》 등을 연출했고,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우수상, 뉴욕 TV페스티벌 동상,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오크대 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비그포르스, 잠정적 유토피아와 복지국가》(책세상)와 《자본주의》(책세상)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길), 로버트 하일브로너 외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미지북스), 조프리 잉햄 《자본주의 특강》(삼천리) 등이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최후의 선택 아로파

고장난 자본주의의 해법을 찾아 65,000km 길을 떠나다

SBS <최후의 제국> 제작팀, 홍기빈 지음 | 아로파 | 정가 16,000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 시스템 '아로파'

고장 난 자본주의의 해법을 찾아 떠나는 『최후의 선택 아로파』. 지금 우리는 1%와 99% 양극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최적의 시스템이라 불리었던 자본주의는 현재 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을까? 지금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이 궁금증에 해답을 찾고자 SBS다큐 <최후의 제국>이 떠난 긴 여정을 책으로 답아냈다. 인류가 생존했던 삶의 원리에서 해답을 찾고자 미국, 중국을 시작으로 태평양 오지 아누타 섬까지 대장정을 펼친 끝에 얻은 답 '아로파' 실천과 더불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크게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자본주의가 전제로 하고 있는 '호모에코노미쿠스'가 과연 진정한 인류의 본성인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현재 자본주의 최첨단에 서있는 미국과 중국을 살펴보고 비대해진 자본주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어서 미국 사회 부의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 빅맨을 중심으로 한 파퓰라뉴기니의 상각부족 마을과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도 라다크의 브룩파 마을을 소개한다. 또 나눔과 연대의 삶 '아로파'의 원리로 공동체 유지하고 있는 남태평양의 아누타 섬주민의 삶을 소개하며 '아로파'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를 통해 모색한다.